

瑟瑟의 研究

金 鎮 玖

漢陽大學校 家政大學 衣類學科 教授

A Study on the Sisi

Jin-Goo Kim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Professor of Hanya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I. 緒 論

II. 瑟瑟의 定體와 語源

III. 產地와 用途

IV. 新羅의 瑟瑟

V. 結論 및 要約

參考文獻

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sl sl* 瑟瑟. The identity, origins of the word, kinds, the place of production, and the uses of the *sl sl* were examined. Also *sl sl* of Silla were analyzed.

The word *sl sl* means the sapphire. The Chinese word *se se(seh seh)*, 瑟瑟 was derived from the Hebrew word, *she she* meaning marble. The use, meaning and the phonetic value of the *sl sl* between the Chinese and the Hebrew were the same each other. It indicates that the Chinese word *se se(seh seh)* was the transliteration of the Hebrew word *she she*.

The *sl sl* were produced in the Middle East Asia and the *sl sl* used in ancient China was mainly originated from the Middle East Asia.

The *sl sl* of Silla was also the sapphire and it was an article of the imported goods from the Middle East Asia.

Women of *Jin gol*(true bone) were not allowed to use the *sl sl* as a material to decorate for their combs and headdresses.

Also women of *yuk du pum* (six *du pum*) were prohibited to use the *sl sl* as a material for their combs.

It indicates that the privilege to use the *sl sl* for a comb and in a headdress was restricted to the queen in Silla and it remained as a symbol of nobility and dignity.

I. 緒 論

우리나라 三國史記에 瑟瑟이라는 말이 보이는데 이것은 新羅사람들이 아주 貴重히 여겼던 物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瑟瑟은 新羅服飾研究를 爲하여는 勿論 新羅語彙 研究에도 貴重한 資料가 되고 있다. 그러나 瑟瑟이 資料를 發見하기 어려운 新羅研究를 爲한 貴한 資料로서 차지하고 있는 比重이 큰데 比하여, 瑟瑟에 對한 研究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三國史記의 瑟瑟에 對한 記錄은 너무 簡略하고, 그 以後의 文獻에도 瑟瑟에 關한 記錄은 거의 發見할 수 없으므로 瑟瑟이 무엇인지 조차 確實히 규명되지 못하였다.

本 論文에서는 瑟瑟의 定體와 語源, 種類, 產地, 用途 등을 규명하고, 新羅의 瑟瑟을 한 項目으로 따로 다루고자 한다.

II. 瑟瑟의 定體와 語源

1. 定 體

瑟瑟은 瑟, 瑟, 瑟瑟이라고 쓰기도 한다. 瑟瑟은 瑟과 같은 字이다.¹⁾ 瑟의 本字는 瑟²⁾이며, 古字로는 瑟, 瑟, 瑟, 瑟字가 있다(說文). 瑟의 本字는 瑟³⁾이고, 瑟은 或, 郵, 必, 幸, 卒와 같이 瑟字로도 쓴다⁴⁾. 郵字를 郵字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郵字는 郵字의 譌이다.

瑟瑟이 무엇이나에 對하여 最初의 定義를 내린 사람은 後魏의 張揖이다. 張揖은 廣雅에서 瑟瑟, 碧珠라고 定義하였다. 그 後로 瑟瑟에 關한 이 定義는 宋, 元, 明, 清代를 걸쳐서 文獻에 나타난다. 胡三省과 曲守光도 宋의 司馬光撰 資治通鑑 卷 216에 나타나는 高仙芝의 石國瑟瑟 掠奪 記事의 註에 「瑟瑟, 碧珠也」라고 張揖의 廣雅를 引用하고 있다.

元代의 黃公紹撰인 韻會도 瑟瑟에 對하여 一曰瑟瑟, 碧珠也. 通作瑟瑟이라 說明하고 있고, 明代의 梅膺祥撰인 子彙에도 「瑟瑟, 碧珠也」라고 韻會와 같은 內容이 나타난다. 또한 清代의 史夢蘭撰의 疊雅에도 「瑟瑟, 碧珠也」라는 說明이 나타나는데, 위의 記錄들은 모두 張揖의 定義와 同一하다. 郎 瑟瑟이 碧珠라는 定義는 後魏 以來 清代에 이르기까지 同一하다. 또한 現代 中國文獻에도 如前히 瑟瑟은 碧珠라고 한 것을 發見하게 된다.⁵⁾

古代 中國人은 瑟瑟을 珠玉名, 寶石名으로 理解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新唐書(221 上 列

1) 詩. 大雅. 旱癘~瑟瑟 玉璣.[釋文] 瑟, 字亦瑟.[集韻] 瑟, 通作瑟

2) 玉篇

3) 說文

4) 集韻

5) 國立編譯館, 礦物學名詞, pp. 296-297.

傳 146上 西域 于闐 國傳)에 朱如玉을 于闐國에 玉을 求하러 보내어 瑟瑟百斤을 求得하여 왔다는 記事와 新五代史(卷 74 四夷附錄 于闐國傳)에 吐蕃… 婦人 辮髮 載 瑟瑟珠라는 例에는 瑟瑟이 珠玉名으로 나타난다.

이를 보면 瑟瑟이라는 寶石은 끝에 珠寶를 덧붙여서 瑟瑟珠라고도 하였다.

李時珍은 瑟瑟에 對하여 그의 本草綱目 寶石條에서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集解, 時珍曰, 寶石出西蕃回鶻地方諸坑內, 雲南遼東亦有之, 有紅綠碧紫數色, 紅子名刺子, 碧者名靛子, 翠者名馬價珠, 黃者名木難珠, 紫者名蠟子. 又有鴉鶻石, 貓睛石, 石榴子, 紅扁豆等名色, 皆其類也. 山海經言, 隗山多玉, 淩水出焉, 西注於海中, 多采石, 采石即寶石也, 碧者唐人謂之瑟瑟, 紅者宋人謂之靛靛, 今通呼謂寶石, 以鑲首飾器物, 大者如指頭, 小者如豆粒, 皆碾成珠狀. 張勃吳錄云, 越嶲雲南 河中出碧珠, 須祭而取之, 有縹碧, 綠碧, 比即碧色寶石也.」 그는 吳錄, 五代史, 緯略, 正字通의 著者と 같이 本草綱目 寶石條에서 瑟瑟을 寶石으로 보았다.

또한 李時珍은 여러 寶石名 中에 靛子라는 이름의 碧色 寶石을 提示하고 碧色 寶石을 唐人은 瑟瑟이라 불렀다고 하고 있다. 위에서 볼 때 그가 指摘한 所謂 明代의 碧色 寶石인 靛子を 唐人이 瑟瑟이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碧色 寶石 卽, 이미 앞에서 論議된 바 있는 所謂 碧珠라는 寶石을 唐人이 瑟瑟이라 말했다는 것인지 分明하지 않지만 그가 뒤에서 張勃의 吳錄을 引用한 것에서 보면 그는 唐人의 瑟瑟을 碧珠로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李時珍이 말하는 碧色 寶石인 靛子라는 寶石은 어떤 寶石인가? 碧色 寶石에는 여러 가지 種類의 寶石이 있기 때문이다. 碧珠와 靛子라는 寶石은 同一物이었나? 아니면 碧珠와 靛子は 異物이었나? 明代人은 唐人이 瑟瑟이라고 불렀던 碧珠를 계속하여 瑟瑟이라고 부른 外에 이에 더하여 靛子を 또한 明代人은 瑟瑟이라고 불렀는가?

그러면 靛子は 어떤 寶石인가? 靛子は 甸字와 同一物이라고 보인다. 靛字와 甸字는 二字가 同一音이다. (甸字는 「廣韻」, 「集韻」, 「韻會」 堂練切 音電靛去聲 *diann tien*⁴⁾, 靛字도 「廣韻」, 「集韻」, 堂練切 音電靛 去聲 *diann tien*⁴⁾)

2. 語 源

漢籍에 나타나는 物品으로서의 瑟瑟이 漢語가 아니라는 것은 明確하다.

Laufer는 寶石으로서의 瑟瑟을 이란 語系의 *se-se*라는 單語를 寫音한 것으로서 Emerald일 것으로 推斷하였다. 그러나 古代 中國의 寶石으로서의 瑟瑟은 sapphire라는 것이 이미 앞에서 證明되었다⁶⁾.

瑟과 瑟字는 「唐韻」·「廣韻」에 所櫛切, 「集韻」·「韻會」·「正韻」에 色櫛切 音瑟 質入聲이라고 있어 *sê seh*라 音이 나고 또한 瑟字는 위의 音 外에 「集韻」에 疏吏切音使라 있어 *shyh*라 發音되기도 한다. 그 外에 *sé, sheh*라 發音되기도 하고, 古音에는 *shik, shat, ship* 등의 音도 있다(William). 그러므로 瑟瑟(瑟瑟)은 위의 音들을 가지고 *sê-sê, seh-seh, she-she, shyh-shyh*, 또는 *shik-shik, shat-shat, ship-ship* 등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고, 瑟(瑟)字 만으로는 각각 앞소리 한 音씩만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다.

Heb. *she she*라는 말은 I Ch 29²에서 material of temple로, **שש**는 material of pavement로 Song 5¹⁵와 Est 1^{6a}에 나타나는 말로서 英語 聖書에서는 (KJV, SV) marble pillar로

6) Betherfold Laufer, Sino-Iranica, Chicago, 1919, pp. 516-519.

한국어 聖書에서는 花斑石기둥(歷代上, 29, 雅歌 5¹⁵), 에스터 1⁶에서는 大理石 기둥 등으로 번역된 말이다.

中國 文獻에 나타나는 瑟瑟에 對한 記錄도 西域諸國의 建物의 기둥을 만드는데 使用된 材料로 나타나는 것이 聖書에 보이는 𐤔𐤕의 用途와 같다. 卽, 舊唐書와 新唐書 拂林傳에는 後述하겠지만 拂林 卽 大秦에서는 瑟瑟을 使用하여 殿의 기둥(柱)을 만든다고 한 것이다.

卽 漢籍에 發見되는 瑟瑟이라는 말은 그 音뿐 아니라 뜻과 用途가 𐤔𐤕와 同一한 것이 證明된다. 그러므로 中國 古文獻에 나타나는 瑟瑟이라는 말은 Heb. 𐤔𐤕에 대한 漢語의 音譯임이 確實하다.

古代中國에서 建築 附屬物로 使用되었던 瑟瑟은 碧珠나 Turkey stone은 아니었음이 分明하고, 聖書의 해석에 나타나는 marble 種類였던 것으로 보인다. 宋史 大食國傳에도 위와 類似한 記錄이 發見된다. 卽, 其居以瑪瑙爲柱, 以綠甘(石之透明如水晶者)爲壁, 以水晶爲瓦라 있으며, 諸蕃志, 大食國條의 記事도 위의 宋史大食國傳 記事와 同一하다. 宋史의 綠甘 卽 石之透明如水晶者인 綠甘이라는 돌의 特性으로 볼 때 이것이 瑟瑟임에 틀림 없을 것 같다.

甸子是 元代의 土耳其石 卽 turquoise를 稱하는 말이었다(陶宗儀, 耕錄). 元代의 이 甸子라는 말이 明代에 靛子라고 쓰였고, 李時珍의 本草綱目에 靛子라고 記錄되었던 것으로 解析된다.

靛이라는 글자는 藍, 藍色染料 卽 Indigo를 意味한다. 明代의 靛子라는 이름은 그 寶石의 色の 特性에서 얻은 이름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本草綱目的 靛子란 元代의 甸子 卽 Turquoise이었던 것이 證明되었고, 碧珠와 靛子是 異物이라는 것도 確證되었다. 瑟瑟이 碧珠라는 定義는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後魏以來 現代까지 一貫된다.

그러면 碧珠란 어떤 寶石인가? 碧珠가 무슨 寶石인지에 對하여 明確하게 答하여 주는 記錄은 거의 發見할 수 없다. 辭典들은 그저 碧珠의 字義의인 解析에 그칠 뿐 만족할 만한 뜻은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 瑟瑟나 靛字의 뜻도 字義에 따라서 푸른 진주 슬 程度의 解析밖에 찾을 수 있을 뿐이다.

清代 方以智의 通雅의 記錄은 瑟瑟의 種類뿐만 아니라 瑟瑟의 中國 뜻인 碧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重要한 힌트를 暗示하여 준다. 瑟瑟에는 三種이 있는데 寶石如珠, 眞者透碧, 番燒者 圓而明, 中國之水料燒珠, 亦借名瑟瑟이라 說明하고 있다. 위의 記錄에 依하면 清代의 瑟瑟은 眞寶石 外에 人造로 만든 것도 包含되었던 것이 發見된다. 清代에 瑟瑟이라 불렀던 人造玉에는 등글고 光澤이 나는 것도 있었고, 또한 中國에서 製造된 水料燒珠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通雅의 記錄에 依하면 眞寶石으로서의 瑟瑟의 特徵은 透碧이라는데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碧色寶石中에 透碧이 아닌 것은 眞瑟瑟이 아니라는 것을 記憶해 둘 必要가 있다. 眞瑟瑟을 意味하는 碧珠라는 것이 무엇인지 규명하는데 重要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위의 瑟瑟의 뜻 外에 中國의 瑟瑟은 터키 玉(Turkey stone) 卽 Turquoise라는 說이 있다. 그 原典은 어디에 있는지 確實히 알 수 없으나 주로 漢語 辭典의 編著者들이 瑟瑟을 Turquoise로 解析하였다.

아마도 그들은 瑟瑟이 碧珠이며 그것은 碧色寶石이라고 解析된 것과 本草綱目 寶石條의 「碧者名 靛子 碧者 唐人謂之 瑟瑟」이라는 記錄에 根據하지 않았나 推測된다. 本筆者도 新羅

의瑟瑟을 Turquoise라고 보았었다.⁷⁾

筆者가 新羅의瑟瑟을 Turquoise라고 結論지었던 根據는 이미 앞에 引用된 바 있는 李時珍의 本草綱目 寶石條의 記錄과 溫陽民俗博物館 所藏의 伽耶地域 出土品이라고 傳하여지는 統一新羅 時代의 梳였다. 筆者는 위의 梳에 鈿飾된 玉과 梳에 달려 있는 裝飾玉 中の 한 가지는 Turquoise 였던 것, 또한 많은 學者들의 漢語 辭典이나 字典들이 瑟瑟을 Turkey石 卽 Turquoise라고 解析한데 있었다.

現代의 中國側 記錄도 亦是 土耳其玉 卽, Turquoise를 瑟瑟이라 定義하였는데, 秦孝儀에 依하면 中國人은 이미 古時에 土耳其玉을 瑟瑟이라 稱하였고, 元代에는 이것을 甸子라 불렀으며, 清代에는 土耳其玉을 綠松石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始作했다고 陳述하였다⁸⁾. 위의 秦孝儀는 元代以前의 中國人은 土耳其玉을 瑟瑟이라 불렀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論據의 原典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眞瑟瑟은 寶石如珠, 眞者透碧이라고 한 通雅의 記錄에 依據하면 Turquoise는 透碧하지 않기 때문에 瑟瑟이 아니라는 것이 證明된다.

Laufer는 古代中國의 寶石으로서의 瑟瑟은 이란 語系의 se-se를 寫音한 것이며, 그것을 emerald 인 것으로 推定하였다⁹⁾. 그러나 瑟瑟은 emerald 일 것이라는 그의 推斷도 맞지 않았다는 것이 發見된다. Emerald는 透明하지만 透碧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故 李龍範 教授도 瑟瑟이 무엇인지에 對하여는 Laufer의 見解를 따르는 듯 하여서 그것을 碧石의 寶石인 것으로 推測된다고 하였을 뿐이다¹⁰⁾. 그러나 故 李 教授의 瑟瑟은 碧石일 것이라는 推斷도 맞지 않았다. 왜냐하면 碧石은 透碧하지 않을 뿐더러 碧石은 Jasper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寶石如珠 眞者透碧의 瑟瑟의 定體는 무엇인가? 이 眞寶石으로서의 瑟瑟이 碧珠인 것이다. 康熙字典 珠字에 正字通을 引用하여 山海經, ...歷山楚水多白珠, 蜀郡平澤出青珠, 左思云: 青珠黃環西國琅玕碧珠, 皆寶石, 名之以珠者也 라고 있다.

위에 依하면 모든 寶石을 珠者라고도 일렀음을 發見할 수 있는데, 앞에서 瑟瑟을 寶石이라 하거나 또는 珠類라고 說明되어 있는 記錄들은 그 意味에 있어 同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瑟瑟은 碧珠의 異名이며 藍寶石 卽, Sapphire를 일컫는 말이다. Sapphire를 中國에서는 藍寶石, 瑟瑟, 碧珠, 青寶石, 青玉, 鋼玉, 眞藍寶石이라 한다.

이로써 張揖이 廣雅에서 瑟瑟은 碧珠라고 定義한 以來 中國文獻에서 한결같이 같은 意味로 定義되어 온 眞 寶石으로서의 瑟瑟은 碧珠이고 瑟瑟과 碧珠는 藍寶石 卽 Sapphire인 것이 규명되었다.

3. 瑟瑟鈿

瑟瑟鈿에 對한 記錄은 興德王 服飾 禁令에 眞骨女, 梳禁瑟瑟鈿玳瑁 釵禁刻縷及綴珠 冠禁瑟

7) Jin Goo Kim, Korean Costume ; An Historical Analysis,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USA, 1977, p. 104.

8) 秦孝儀, 清代服飾展 圖錄, 台北, 國立故宮博物院, 1986, p. 19.

9) Betherhold Laufer, Sino-Iranica, Chicago, 1919, pp. 516-519.

10) 李龍範, “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 商人의 貿易品”, 李弘植 博士 回甲記念 韓國史學論叢, 1960, pp. 95-104.

瑟瑟鈿. 六頭品女, 梳禁瑟瑟鈿, 五頭品女, 梳用素玳瑁已下眞骨女가 있다. 景文王 9년에 唐에 파견했던 新羅使臣의 謝恩品中에 瑟瑟鈿金針筒三十具로 나타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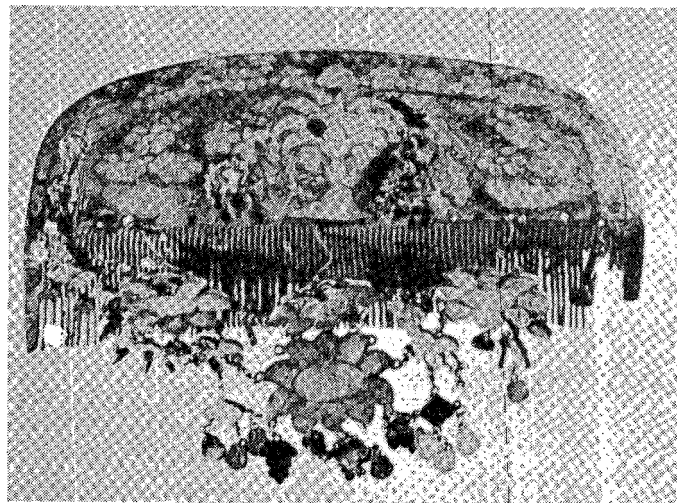
瑟瑟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앞에서 이미 論議가 되어 밝혔으므로 여기서는 그러면 瑟瑟鈿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야 할 必要가 있다. 먼저 鈿의 뜻을 보면 鈿이란 金華(說文新附), 金花(廣韻, 宋, 陳彭年, 玉篇), 金華飾(集韻), 簪, 釵, 鈿花, 具飾 等の 여러가지 意味가 있다.

花朵形의 裝飾品으로서의 鈿中에 金鈿(그림 1)은 金屬製의 것을 일컫는다. 이것은 唐代婦女 首飾品으로 盛行하였는데 그 形態는 꼭 花朵形만이 아니고 花葉을 가진 折枝花形도 있었다.

鈿은 그것을 만든 材料에 따라서 金으로 만든 것을 金鈿, 翡翠羽로 만든 것을 翠鈿, 金鈿위에다 寶石을 嵌(또는 鑲)하거나 寶石을 直接 花朵形으로 만들거나 한 것을 寶鈿이라 한다. 이러한 것들의 例는 唐代 婦女의 首飾과 冠飾뿐만 아니라 宋, 明, 清代를 걸쳐서 그 例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新羅의 瑟瑟鈿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이었을까? 이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하여 新羅의 瑟瑟鈿에 對한 記錄을 注意깊게 보아야 할 必要가 있다. 흥덕왕 복식금령에는 新羅의 瑟瑟鈿에 對해서 眞骨女 梳禁瑟瑟鈿 玳瑁, 六頭品女 梳禁瑟瑟鈿이라고 나타난다. 여기에 六頭品女 梳의 材料에 對하여는 나타나지 않지만, 五頭品女 梳의 材料는 用素玳瑁已下라고 나타난 것으로 볼 때 六頭品女의 梳禁瑟瑟鈿도 眞骨女의 梳와 같이 그 위에 玳瑁가 省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禁令前에는 五頭品女도 素玳瑁보다 더 貴한 種類나 色의 玳瑁를 使用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四頭品女의 梳에도 梳用牙角木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四頭品女도 素玳瑁(또는 그 以外의 品質도)를 使用하였던 것으로 解析된다. 뿐만 아니라 같은 東南亞의 輸入品이었어도 玳瑁는 牙角보다는 더 貴한 物品이었음도 알 수 있다.



<그림 1> 瑟瑟鈿 玳瑁梳

興德王 服飾禁令에서 眞骨女의 梳에 瑟瑟細玳瑁와 六頭品女의 梳에 瑟瑟細을 各各 禁하였다는 것은 그 以前에는 六頭品女 以上の 婦女는 그들의 梳에 瑟瑟細 裝飾을 하였다는 意味이다. 그러나 禁令以後에는 眞骨女와 六頭品女의 梳에 瑟瑟細을 禁하였으므로 王妃만이 瑟瑟細梳를 할 特權이 있었던 것이다. 梳는 빗인데 이가 생긴 것을 말하고(卽 얼레빗) 이가 촘촘한 것은 篦(참빗)라고 한다.

梳의 本來 目的은 머리를 빗는데 있었고 男女老少 모두에게 必要한 것이었다. 빗(梳)은 理髮器具로서 뿐만 아니라 中國古代 女人은 그것을 머리에 꽂기도 하였는데, 그 歷史는 大端히 오래이다. 插梳의 習俗은 이미 春秋 戰國時代에도 있어 왔으나 魏晉 以後에 流行하기 始作하여 唐代에 이르러서 極致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는 裝飾的 目的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裝飾的 目的이 梳의 裝飾性을 強調하기에 이르러서 梳의 材料로는 金, 銀, 銅, 玉, 珠翠, 玳瑁, 象牙, 角, 竹, 木 등을 使用하게 되었고, 빗에는 조각, 嵌, 彩繪 등의 方法을 使用하여 花, 鳥, 動·植物 등의 紋樣을 裝飾하였다.

唐代婦女에게 盛行하였던 插梳의 習俗의 風이 新羅의 親唐政策의 影響으로 여러 가지 唐風과 함께 服飾風도 들어오게 되었다.

新羅女人들이 唐代婦女의 插梳의 風俗을 따랐을 것이라는 데 의심할 餘地가 없음은 흥덕왕 복식금령에 나타나는 上流階級 婦女梳의 材料와 그 裝飾으로 알 수 있다.

- 眞骨女 禁瑟瑟細玳瑁
- 六頭品女 禁瑟瑟細
- 五頭品女 用素玳瑁已下
- 四頭品女 用素牙角木

으로 나타난다. 이 禁令에 나오는 材料는 瑟瑟細 玳瑁, 素玳瑁, 素牙角, 木 等이다. 唐代의 婦女는 머리에 梳를 꽂는 方法이 다양하였다. 얼굴을 正面으로 頭部의 中央이나, 兩鬢, 後頭部의 中央이나 옆 等에 꽂았고, 때로는 前面 頭部의 中央을 中心으로 前面上部의 양옆에 各各 하나씩 꽂아서 앞머리 部分에 3個의 梳를 꽂은 例도 있었다.

新羅女人들의 梳를 꽂는 方法도 唐代의 婦女들과 같이 머리 여러 곳에 꽂았을 것이다. 그러나 瑟瑟細玳瑁로 만든 빗은 한개 만을 꽂았다면 아무래도 잘 보이는 앞 머리쪽에 꽂았을 것 같다.

新羅上流階級の 女人梳의 材料도 唐代 上流社會 婦女의 梳의 材料와 같은 玳瑁牙角 等이 나타난다. 興德王 服飾禁令에 나타나는 眞骨女의 瑟瑟細 玳瑁梳와 六頭品女의 瑟瑟細梳(여기에 材料는 明示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玳瑁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이 어떤 모양의 梳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아주 貴重한 資料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그림 1, 2). 이것은 統一新羅時代의 것으로서 伽倻出土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新羅時代의 梳의 形態, 材料는 勿論 裝飾 等を 알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그림 1>은 바로 우리에게 瑟瑟細梳란 어떤 것이었던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이 빗은 興덕왕 복식금령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材料인 玳瑁에다 細을 한 것이다. 興味로운 것은 빗의 이(齒) 部分보다 오히려 손을 잡는 쪽 擘部 部分이 더 넓다는 것이며, 바로 그 손잡이 部分에다 그림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몇가지 綠松石

으로 花形紋을 박아서 金絲로 그 주위를 嵌하였다. 또한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큰 꽃 3개를 따로 만들어 그 中 가장 큰 꽃을 中央에 배치하고, 그것을 양옆의 작은 꽃과 연결하고, 中心의 꽃 아래로는 꽃망울, 포도송이, 마름모꼴(4자형) 등의 구슬들로 연결하였다. 이 늘어지는 裝飾의 세 곳을 몸체에 꿰어 달았다. 이 梳를 머리에 꽂으면 몸체쪽의 綠松石(瑟瑟) 鈿한 쪽의 裝飾과 鈿花으로서의 裝飾은 다 같이 보이고 鈿花쪽의 裝飾은 또한 아래로 늘어뜨려짐으로써 걸을 때 步搖와 같이 흔들리게도 되어 있다.

〈그림 1〉의 梳의 例를 볼 때 梳에 使用된 新羅의 瑟瑟鈿이란 花朵形 또는 그 外의 花朵形과 섞인 紋樣의 寶石 瑟瑟을 玳瑁에 박고, 金絲로 그 紋樣들의 둘레를 嵌한 것과 아울러 直接 瑟瑟을 金花朵形 또는 그 外의 여러가지 원하는 形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서로 고리와 같은 것으로 連結하여 하나의 全體的인 統一된 形態로 만들어서 그것을 梳에 꿰어 단 것으로 發見되었다.

換言하면 新羅人의 瑟瑟鈿에는 앞에서 鈿의 定義에 나타난 두가지 意味 卽 金花(또는 金花飾)으로써의 花形(여기서는 寶鈿 또는 寶花) 裝飾과 寶石을 박고 金絲로서 嵌하는 두가지 方法이 同時에 玳瑁梳를 裝飾하는데 使用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興味롭고 稀貴한 빗이다.

筆者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이 빗을 除外하고는 大端히 裝飾的인 紋樣으로 조각된 빗은 보았으나 빗에 寶石을 嵌하고 同時에 步搖와 같은 效果를 내는 寶鈿을 따로 단 梳는 본 일이 없다. 〈그림 2〉에서는 玳瑁梳의 例이다. 이 빗은 현대까지도 사용되어온 耳環의 모양과 별로 다르지 않고 거의 같다.

筆者가 興德王 服飾禁令에 나타나는 瑟瑟鈿을 turquoise라고 結論을 내렸던 것도 中國 古代의 瑟瑟은 turquoise라는 文獻的 資料와 또한 이것을 證明할 수 있는 資料가 바로 가야지방에서 출토되었다고 傳해지는 統一新羅時代의 빗이었던 것이다.

瑟瑟은 風聲이란 意味가 있지만 그 解析은 옳지 않은 것이다. 瑟瑟은 寶石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엄밀한 意味에서 簪은 가지가 하나이고, 釵는 가지가 둘인 비녀로서 다르다. 隋唐時代에는 高髻가 盛行하였으므로 그것을 固定시키기 위하여 釵가 流行하였다. 釵에 對한 記錄은 興德王 服飾禁令에 자세히 나타나는 反面에, 簪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다. 釵에 對한 禁令이 또한 眞骨女에서부터 四頭品女까지 各各 따로 있고 冠에 對한 記錄은 梳와 釵 다음에 나타난다. 卽

眞骨女

梳禁瑟瑟鈿玳瑁

釵禁刻鏤及綴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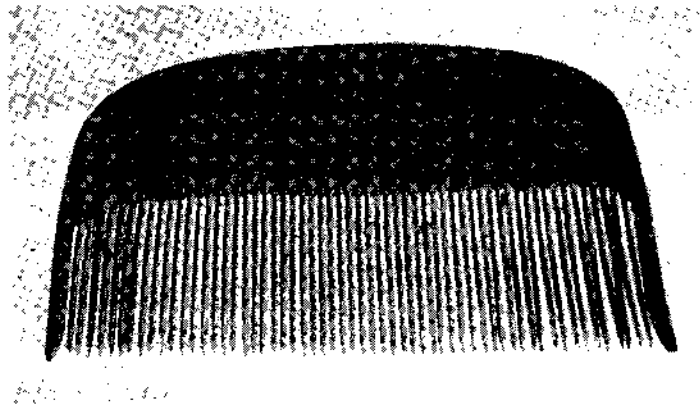
冠禁瑟瑟鈿

六頭品女

梳禁瑟瑟鈿

釵禁純金以銀刻鏤及綴珠

用總羅紗絹



<그림 2> 玳瑁梳의 例

으로 나타난다."¹¹⁾

<그림 1>의 梳에서 瑟瑟鈿으로 綴珠를 한 것이 보였는데 釵에 刻鏤 뿐만 아니라 梳에와 같이 綴珠를 한 것도 新羅服飾의 特異한 面으로 나타나는 現象인데 이것도 唐風이었다고 하겠다.



<그림 3> 唐代 貴婦女의 女冠의 形態와 構造

禁制에 眞骨女의 冠飾으로 나타나는 鈿自體가 唐 나라의 裝飾品 또는 裝飾法이므로 眞骨女와 六頭品女의 冠制도 唐制였음이 確實하다 할 것이다. 또한 禁制에는 男子의 冠帽는 眞骨大 等에서 부터 平民까지 唐制인 幘頭一色이며 女子의 服制는 거의 唐化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나는 六頭品女冠의 材料는 縛羅紗絹을 使用하도록 命하고 있는데 眞骨女의 冠의 材料는 위의 禁制에 明示되어 있지 않다. 眞骨大 等の 幘頭材料를 보면 任意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眞骨女의 冠의 材料도 六頭品女의 것과 같이 織物類이며, 材料는 眞骨大 等の 것에서처럼 任意로 選擇할 수 있었던 것으로 解析된다.

그러므로 眞骨女의 冠은 布製이고 여기에 冠飾 瑟瑟鈿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新羅 上流階級의 女冠에 對한 正確한

11) 三國史記 卷 第三十三 雜志 第二色服.

知識을 얻기 爲하여서는 唐代貴婦女의 冠에 對한 資料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텐데 唐代의 女冠에 對한 視覺的 資料는 大端히 稀貴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림 3>은 唐代 貴婦女의 女冠의 形式과 構造를 알 수 있는 아주 貴重한 資料이다. 眞骨女의 冠이 만약 布製였다면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冠前面의 中央에 瑟瑟細(瑟瑟로 만든 꽃모양의 裝飾品)을 달고 그 밖에도 이와 비슷하게 장식한 冠이 나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例는 新羅의 男冠에서는 볼 수 없으나 古代 日本의 男子冠帽에는 實際로 細이라고 부른 冠飾을 布冠의 前面 中央에 附着하여 使用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新羅女冠의 冠飾으로 나타나는 瑟瑟細이란 細을 理解하기 爲하여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貴重한 資料이다.

만약에 禁令頒布前에 眞骨女가 使用하였던 瑟瑟細 裝飾의 冠(王妃도 그런 冠을 썼을 것이다)이 布製가 아니고 金屬製로 된 것이었다면 瑟瑟細은 金屬製에 瑟瑟花紋이나 그 외의 紋樣을 瑟瑟로 박아서 金으로 嵌한 것이거나 또는 거기에다 직접 瑟瑟과 다른 寶珠 등을 따로 花形 또는 草花葉과 같은 것을 만들어 달고 붙이거나 또는 金花속에 박아서 그것들을 따로 冠에 붙이거나 하였을 것이다.

冠의 前面 中央部位에 細을 裝飾한 例는 新羅 男子의 冠飾으로는 찾아 볼 수 없으나 日本의 男子 冠帽에는 實際로 細이라고 하는 冠飾을 布冠의 前面 中央部位에 附着하여 使用하였던 것이다.

景文王 9년에 唐謝恩品으로 보냈던 物品 中에 끼어 있는 瑟瑟細 金針筒은 金에다 瑟瑟을 박아서(嵌) 장식한 金針筒이었거나 또는 여기에다 더 장식적으로 <그림 1>의 細과 같이 瑟瑟로 花朵形을 만들어서 그것을 金針筒에 매달기도 하였을 것이다.

Ⅲ. 產地와 用途

1. 石 國

瑟瑟에 對한 記錄으로 舊唐書 卷 104 列傳 第 54 高仙芝傳에 「高仙芝本高麗人也...仙芝性貪獲石國大塊瑟瑟十餘石眞金五十六」이라 있고 舊唐書 卷 109 列傳 第 59 李嗣業傳에도 「仙芝給石國王約爲和好乃將兵襲破之殺其老弱虜其丁壯取金寶 瑟瑟駝馬 等」이라 나타난다.

新唐書 卷 135 列傳 第 60 高仙芝傳에도 舊唐書 高仙芝傳에서와 同一한 內容의 「仙芝爲人貪破石獲 瑟瑟十餘斛」라는 記錄이 보인다.

高仙芝는 本來 高句麗 出身으로 安西四鎮節度使가 되었다. 그는 貪慾스러운 爲人이어서 石國을 치고 十餘石(十餘斛)이나 되는 瑟瑟을 掠奪하였다는 記事가 보인다.

石國에서 瑟瑟이 많이 產出되었던 것은 新唐書 221 下, 西域列傳 中 146 下 吐火羅條에 「石或曰柘支... 東南有大山生瑟瑟」이라고 있는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 위의 記錄에 나타나는 石國이란 隋唐時代의 西域國名이다.

魏書에서는 柘支, 隋書에서는 柘折, 大唐西域記에서는 赭時, 杜環經行記는 赭支, 唐書는 柘支, 元史에는 塔史, 蔡赤 등으로 記錄되어 있는 것이다. 石國은 모두 위의 것들의 略稱으로서 지금의 蘇領 中央亞細亞의 塔什干(Tashkent)이다. 唐書 西域傳에 龜茲國南有石國이라는 것이 있다. 唐時代의 龜茲國 南쪽은 大略 于闐을 包含하여 그 東쪽과 東北쪽 隅을 全部 包含한다. 古 李龍範 教授는 新唐書의 石國傳에 보이는 石國 東南有大山生瑟瑟이라는 記錄에 對하

여 타슈켄트의 東南有大山이라고 하면 거기엔 파미르 高原밖에 없는 까닭에 대체로 아라르海 東岸一帶가 그 產地라고 推斷하였다¹²⁾. 그러나 아라르海 東岸一帶는 龜茲國 南쪽에 位置한 石國으로부터는 너무 떨어져 있다. 東南有大山의 大山이란 崑崙山을 말한다. 山海經, 大荒西經에 「赤水之後, 黑水之前, 有大山, 名曰崑崙之丘」라 있다. 崑崙山은 實은 中國 最大의 山脈인 것이다. 古來로부터 崑崙珠琳이라고 하여 崑崙山에서는 美玉이 產出되었다(淮南子, 墜形訓~ 西北方之美者, 有崑崙之球琳, 琅玕焉. [注] 球琳, 琅玕, 皆美玉也.).

이로 보던 石國의 東南에 位置하였던 大山, 卽 崑崙에서 球琳, 琅玕 등과 같은 美玉과 함께 瑟瑟도 產出되었던 것이 證明된다.

2. 于 闐

于闐은 漢時代의 西域 여러나라 中의 하나이다. 于寘이라고도 하고 或은 瞿薩日那, 漢那, 屈丹이라고도 한다. 이 나라는 葱嶺以北에 位置하였다. 宋代 以後로는 계속 于闐國이라 불렀다. Silk Road의 大國으로서 古代로부터 玉의 名產地로 알려진 곳이다.

新唐書 221上 列傳 146上 西域 于闐條에 「初德宗卽位遣內給事朱如玉之安西求玉于于闐, 得圭一珂佩五枕一帶勝三百簪四十逾三十釧十杵三瑟瑟百斤」이라 있다. 唐의 德宗(700-804 A. D.)이 卽位하여 內給事朱如玉을 于闐에 玉을 求하러 보내어서 瑟瑟百斤을 求得하여 왔다는 것이다.

3. 吐 蕃

吐蕃은 吐番이라고도 쓰는데 唐時에 本來 西羌屬에 屬하였던 나라 이름이다. 現 中國의 西藏(Tibet)이라고 부르는 땅이다. 티베트 人들이 現在도 얼마나 寶石裝飾을 좋아하는지를 보면 그것은 오랜 風土的·民族的인 傳統에 基因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新唐書 216上 吐蕃列傳 第 141 上에 吐蕃人의 瑟瑟의 價値와 愛好에 關하여 「其官之章飾最上瑟瑟 金次之金塗銀又次之銀次之最下至銅」이라는 記錄이 나타난다. 이 記錄은 吐蕃人이 瑟瑟을 그들의 章飾으로 使用하였는데 章飾의 材料로는 여러가지 金銀寶石中에서 瑟瑟을 最上으로 쳤고, 金을 그 다음으로 쳤다는 것이다. 瑟瑟, 金, 金塗銀, 銀, 銅의 五等級 章飾으로 身分의 貴賤 官品의 尊貴를 區別하였다. 章飾은 앞의 어깨에 붙였는데 褐上에다 三寸方圓의 것을 꿰매었다.

吐蕃人에게 瑟瑟이 얼마나 貴重하였고 값 비싼 物品이었던가는 新五代史卷 74 四夷 附錄 于闐國傳의 「吐蕃男子冠中國帽 婦人辮髮載瑟瑟珠云珠之好者一珠易一良馬」라는데서 明白히 나타난다.

위의 新五代史의 記錄을 보면 吐蕃의 男子官人은 章飾용으로 瑟瑟을 使用하였고 婦人은 辮髮에다가 瑟瑟珠를 使用하였는데, 그 구슬의 質이 좋은 것은 한개에 좋은 말 한 필과 바꾼다고 하여 瑟瑟의 값이 얼마나 비싼지 짐작케 한다. 辮髮한 머리에 瑟瑟珠를 裝飾하였다는 것은 그것을 머리에 直接 꽂았는지, 冠飾에 使用하였는지 또는 땀기와 같은 것에 瑟瑟珠를 박아 만들어서 머리에 裝飾했는지는 正確히 알 수 없다.

12) 李龍範, "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 商人의 貿易品", 李弘植 博士 回甲記念 韓國史學 論叢, 1961, p. 97.

4. 拂林(大秦)

舊唐書 卷198 列傳 第 148 西域 拂林傳에 「拂林一名大秦 在西海之上 東南與波斯接之 土多金銀奇寶有夜光璧明月珠駭鷄犀大貝車渠瑪瑙孔翠珊瑚琥珀 其殿以瑟瑟爲柱 黃金爲地象牙爲門扇香木爲棟梁」이라 있고 新唐書 221 下 列傳 146 下 西域 拂林傳에도 위의 舊唐書와 같은 記事가 보인다. 金銀奇寶石을 建物을 짓는데도 使用하였고 瑟瑟을 가지고 宮殿의 기둥을 만들었다고 한다.

拂林은 一名 大秦이라고 부른 나라로서 古代로부터 金銀奇寶石이 豊富하게 產出되는 나라로 알려져 왔다. 그러한 例가 위에 잘 나타난다.

5. 回鶻

回鶻이란 所謂 漢代와 南北朝時代에 西域이라고 불려진 地域으로 宋代의 回鶻은 玉의 名產地로 著聞된 于闐, 和闐 地域까지를 包含하고 있었던 나라이다.

宋의 洪皓는 그의 松漠紀聞에 回鶻人의 特徵과 그 特產物에 關하여 「其人 卷髮深目眉秀而濃自眼睫而下多虬髯 土多瑟瑟珠玉, 帛有兜羅羅注絲熟綾斜褐---」이라고 記錄하고 있다. 回鶻에서 瑟瑟이 產出된다는 松漠紀聞의 記錄에 對하여 故 李龍範 教授는 瑟瑟은 回鶻의 土產物이 아니었다고 言及하고 있다. 무슨 根據에서 그렇게 斷定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그는 北宋으로부터 南宋을 걸쳐서 宋代의 回鶻은 高昌과 龜茲以南까지를 包含하고 大略 吐蕃 北쪽에 位置하고 있었던 廣大한 나라였었다는 것을 看過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斷定을 내리지 않았을까 推測된다(回鶻은 時代에 따라서 그 領土의 境界가 大端히 變化가 많았다).

6. 越嶲, 雲南

越嶲, 雲南도 碧珠의 名產地였다. 越嶲郡會元縣의 元馬河畔에 祠堂이 있고, 河中에는 碧珠가 있는데, 만약 祭祀를 지내지 않고 그것을 캐어 내면 祥瑞롭지 못하다는 記錄이 異苑¹³⁾(異苑曰越嶲會元縣之馬河畔有司河帟碧珠若不祭祀取之不祥)에 나타난다.

이와 같은 記事는 本草綱目 寶石條에도 「張勃 吳錄云-越嶲雲南河中出碧珠, 須祭而取之, 有縹碧, 綠碧, 此郎碧色寶石也.」이라고 보인다. 이들이 碧珠를 얼마나 貴重히 다루었는지를 위의 記事에서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太平御覽 卷第 809 珍寶部 8, 廣雅曰 碧有縹碧綠有碧出越嶲雲南이라 있다. 本草綱目 寶石條 「張勃吳錄云 越嶲雲南河中出碧珠 須祭而取之, 有縹碧, 綠碧, 此郎碧色 寶石也」라고 보인다.

古代의 靑玉이라 하는 것은 꼭 碧珠만을 意味한 것은 아니었고, 이 말은 광범위하게 使用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中國 古人은 玉中에서 靑玉을 最上으로 쳤다. 漢書 西域傳에 依하면 鐵山에서 靑玉이 產出되었다. 把婁도 또한 藍田과 靑玉의 產地로 알려져 있었다. (本草綱目 卷8 金石部 玉條 : 本草寶石) 集解時珍曰, 寶石出西蕃回鶻地方 諸坑內, 雲南遼東亦有之, 有紅綠碧紫數色 紅者名刺子, 碧者名靛子, 翠者名馬價珠, 黃者名木難, 紫者名蠟子.)

13) 太平御覽 卷 第809 珍寶部 8.

IV. 新羅의瑟瑟

1. 瑟瑟에 대한 記錄

瑟瑟이라는 單語가 우리나라 記錄에 最初로 나타나는 것은 三國史記 卷 第三十三 雜誌 第二 色服條이다. 卽 新羅 興德王 94(834 A.D.)의 服飾禁令에 「眞骨女… 梳禁瑟瑟細玳瑁. 釵禁刻縷及綴珠. 冠禁瑟瑟細」, 「六頭品女… 梳禁瑟瑟細」으로 나타난다.

이로부터 바로 35年後인 景文王 9年(869 A.D.) 7월에 王子 蘇判, 金胤 等を 唐으로 倂견하여 謝恩하고 倂하여 보낸 謝恩品 中에 「瑟瑟細金針筒三十具 金花銀針筒三十具 針一千五百」¹⁴⁾의 記錄으로 발견될 뿐이다. 新羅人들이 그토록 貴重視하였던 瑟瑟이 興德王 服飾禁令 頒布로부터 35年 뒤 唐으로 倂견하였던 謝恩使의 謝恩品目 中의 하나로서 瑟瑟細金針筒三十具가 들어 있었던 것이었다. 前述하였지만 瑟瑟을 唐人이 大端히 貴重히 여기고 좋아하였던 寶石이었다. 이러한 事實은 新羅가 唐과의 親善關係를 얼마나 重要視하였는지 端的으로 알 수 있는 根據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三國史記의 記錄에 의하면 瑟瑟은 가장 高貴한 新羅 婦女의 冠과 梳의 裝飾과 唐으로 보내는 針筒의 裝飾에 使用되었다는 用途만 알 수 있을 뿐 그것이 어떤 物品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新羅의 瑟瑟은 西域에서 輸入된 貿易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瑟瑟의 使用者와 用途

興德王 服飾禁令에서 眞骨女의 冠과 梳에, 六頭品女의 梳에 瑟瑟細을 禁하였다는 記錄에 依據하면 新羅에서는 興德王 9年 服飾禁令 頒布 以前까지는 眞骨女의 冠과 梳, 그리고 六頭品女의 梳에 瑟瑟細을 使用하고 王妃에 對한 言及이 없지만 王妃는 물론 眞骨女와 같이 冠과 梳에 瑟瑟細을 使用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興德王 服飾禁令 頒布 以後에도 계속 冠과 梳에 瑟瑟細을 使用하는 것이 許容되었던 사람은 단지 王妃 뿐이었다는 뜻이 된다.

服飾禁令 以前에 冠과 梳에 瑟瑟細을 할 수 있는 特權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王妃와 眞骨女로서 단지 有骨品者였고 梳에만 瑟瑟細을 할 特權이 있었던 사람은 六頭品女뿐이었다는 것이 證明된다.

이에 依據하면 興德王 服飾禁令 以前에는 女冠의 瑟瑟細 裝飾은 王妃와 眞骨女에게만 그 使用 범위를 局限시켰다. 卽 瑟瑟細冠은 王族女만이 使用할 수 있었으므로, 그것은 王族女의 特權이었고 또한 王族을 다른 階級과 區別하는 신분 계급의 구별 手段으로서 王族이라는 標識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瑟瑟細 裝飾의 梳는 六頭品女와 王族女(眞骨女)가 使用하였던 것으로 解析된다. 여기서 六頭品女의 瑟瑟細梳는 六頭品女를 五頭品 四頭品女와를 區別 지었다. 이는 같은 品階안에서도 階級의 上下를 구별짓고 差異를 두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興德王 服飾禁令의 頒布는 服飾을 通하여 그 以前보다 身分과 階級 區別을 더욱 強化하고 엄격하게 만들었다. 卽, 瑟瑟細 裝飾冠의 使用을 眞骨女에게 禁하고 瑟瑟細 裝飾의 梳는 六頭品女에게 그 使用을 禁함으로써 眞骨女만이 그것을 使用할 수 있게 許諾하였다.

新羅에서 가장 높은 身分과 地位에 있었던 眞骨女의 冠과 梳에, 六頭品女 梳에 使用되었던

14) 三國史記, 卷第十一 新羅本紀 第十一, 四七 景文王 九年 秋七月條.

瑟瑟鈿은 그것이 어떤 確立된 服飾品目도 아니었고, 冠과 梳 裝飾에 쓰였던 하나의 微細한 附屬物에 不過하였음에도 不拘하고 그 用途의 範圍가 變할 때에는 服飾構造 全般에 變化를 招來하게 된다는 것을 發見하게 된다. 卽 瑟瑟鈿의 使用 範圍의 變化는 新羅上流階級 婦女의 服飾構造, 服飾의 意味와 機能의 變化까지도 包含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變化에 따른 服飾構造의 變化를 圖表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3. 瑟瑟의 使用者 用途의 變化

興德王 服飾禁令의 頒布는 新羅婦女의 瑟瑟鈿 그것 自體의 格 뿐 아니라 瑟瑟鈿冠과 瑟瑟鈿梳의 格을 昇格시켰다. 瑟瑟鈿의 冠과 瑟瑟鈿의 梳의 格 昇格을 表로 보면 <표 1>과 같다.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冠과 梳에 瑟瑟鈿을 하였다는 瑟瑟의 形과 用途에는 變化가 없다. 다만 그 使用者의 階級이 變한 것이다. 卽 瑟瑟鈿冠을 사용할 特權이 있었던 階級의 사람은 眞骨女에서 아마 王妃로, 瑟瑟鈿梳를 使用하도록 許諾된 階級의 사람은 六頭品

<표 1> 使用者와 用途

		興德王 服飾禁令前 瑟瑟鈿	興德王 服飾禁令以後 瑟瑟鈿	使用者 變化有無
聖骨女	冠	有	有	無
	梳	有	有	無
眞骨女	冠	有	無	有
	梳	有	有	無
六頭品女	冠	無	無	無
	梳	有	無	有
五頭品女	冠	無	無	無
	梳	無	無	無
四頭品女	冠	無	無	無
	梳	無	無	無

<표 2> 瑟瑟鈿의 使用者와 用途의 變化

	禁令前	禁令後
瑟瑟鈿冠	眞骨女	王妃
瑟瑟鈿梳	眞骨女 六頭品女	眞骨女

女에서 眞骨女로 各各 한 段階씩 昇格하였다는 것이 證明된다.

眞骨女와 六頭品女의 冠과 梳의 形態와 用途는 그 使用을 制限시킴으로 하여 일어난 結果로서 위의 結果에서 한가지 抽出할 수 있는 原理 내지 結論은 어떤 服飾品目이나 또는 그것과 관련된 品目 附屬物의 使用制限은 使用者가 制限되므로 稀少性으로 因하여 그 品目

의 價値 내지는 格을 昇格시키고 그 反對는 價値와 格을 下落시킨다는 것이다.

4. 意味, 機能의 變化

服飾使用의 格의 昇·下落은 全體적으로 볼 때 形態, 意味, 機能의 構造에도 變化를 일으켰다. 그러나 여기서는 形態自體의 變化는 일어나지 않고 다만 그 使用者를 制限킴으로써 瑟瑟細冠의 境遇에서 보면 그것을 使用하는 사람은 有骨品女 卽, 眞骨女를 나타내는 意味에서 오직 王妃를 나타내는 意味로 變化한 것이다. 瑟瑟細梳의 使用에서 보면, 그것의 使用者는 眞骨女와 六頭品女라는 意味에서 有骨品女(眞骨女)만이라는 意味로 바뀌었다. 卽, 여기에서 瑟瑟細梳의 使用限界는 骨과 品을 區別하고 差異를 짓는 意味가 包含되어 있다.

이와 같이 有骨品女만이 使用할 수 있었던 瑟瑟細冠의 使用은 眞骨女에게 그 使用을 禁止시킴으로써 그 意味體系가 變化하였을 뿐 아니라 그 使用範圍는 制限되고 縮小되었으나 用途, 意味, 機能의 格은 昇格된 것이다. 卽 瑟瑟細冠을 使用하는 者는 至極히 高貴한 者(오직 王妃)를 意味하고 標識하는 機能으로 上昇하였다.

瑟瑟細梳의 使用에서도 그 使用者를 制限시킴으로써 瑟瑟細冠의 境遇에서와 같은 構造의 意味, 制限, 縮小가 일어나고 同時에 意味와 機能의 上昇 現象이 일어났다. 卽 服飾 禁令 頒布前에는 瑟瑟細梳의 使用者는 有骨品女(眞骨女)와 六頭品女를 意味하였던 것이지만 禁令 頒布以前에는 瑟瑟細梳는 오직 有骨品女(眞骨女)라는 意味가 制限, 縮小된 反面 意味의 格은 上昇된 것이 나타났다.

瑟瑟細의 冠은 한가지 그 細細한 面에서는 有骨品女를 標識하고 有品女와 區別하는 機能에서 王妃와 眞骨女를 區別하는 機能으로 變化하였다. 六頭品女에게 瑟瑟細梳의 使用禁止는 그 細部의인 機能面에서 前에는 有骨品女와 有頭品女中 六頭品女 以上을 五頭品女 以下와 區別하던 機能에서 有骨品女(眞骨女)를 有頭品女와 區別짓는 機能으로 變化되었다.

그러나 服飾의 더 큰 意味와 機能面에서 본다면 높은 身分과 品階의 象徴의 意味와 下層 階級과의 區別과 差異를 표시하는 機能은 大體로 變化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服飾體制의 全體의인 面에서 보면 意味와 機能을 制限시킴으로써 身分地位를 區別하고 差異를 두는 Communicative meaning과 function은 더욱 強化되었다.

V. 結論 및 要約

本 論文은 瑟瑟의 定體, 語源, 種類, 產地, 用途와 新羅의 瑟瑟에 對하여 다룬 것이다. 本 論文의 結果에서 結論을 도출하여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瑟瑟은 古代 西域諸國, 中國, 新羅에서 아주 貴重히 여겼던 寶石이었다.

瑟瑟이라는 것은 碧珠이다. 이 말은 後代로 내려오면서 人造珠類를 포함하기도 했고 터키 玉을 意味한다는 說도 있다. 그러나 瑟瑟이 碧珠라고 하는 定義는 中國에서 後魏 以來 現代까지 一貫되게 사용되어온 것이 발견되었다.

中國 古史書에 四域諸國의 建築物기둥의 材料이름으로 나타나는 瑟瑟이라는 말은 寶石類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 四域諸國 建物기둥 재료 이름으로 기록된 이 瑟瑟이란 말은 그 音, 뜻, 用途가 聖書에 나타는 大理石기둥, 花斑石 기둥, 마루바닥재 등의 聖殿 建築材料로 사용되었던 物品名 卽 大理石이라고 번역된 희브리語 she she와 同一하다. 건축재료로 기록된 漢語 瑟瑟이라는 말은 희브리語 she she에서 그 音, 뜻, 用途가 유래된 것이 밝혀졌다. 瑟瑟은 희

브리 語 *she she*(marble)에 그 語源이 있으며 또한 그것은 *she she*의 漢音譯인 것으로 나타났다.

碧珠란 sapphire를 일컫는 말이다. Sapphire를 中國에서 藍寶石, 瑟瑟碧珠, 青寶石, 青玉, 鋼玉, 眞藍寶石이라고 번역하였다. 즉 瑟瑟이란 sapphire이다. Sapphire란 瑟瑟, 碧珠, 藍寶石, 青寶石 등의 여러가지 異名을 가지고 있다.

瑟瑟은 石國, 于闐, 吐蕃, 拂林(大秦), 回鶻, 越嶲, 雲南 等地에서 產出되었다. 古代 中國에서 使用되었던 瑟瑟은 주로 西域產이었다.

瑟瑟의 用途는 대체로 크게 建築 附屬物과 服飾 裝飾品의 두가지였다. 服飾 裝飾品으로 使用되었던 境遇에 瑟瑟은 富貴와 높은 官品의 象徴 표시로 나타났다.

新羅의 瑟瑟에 對한 三國史記의 記錄에는 興德王 9年(834 A.D.)의 服飾禁令에 眞骨女의 梳와 冠에 瑟瑟細을 禁했고, 六頭品女의 梳에 瑟瑟細을 禁한 것이 보이고, 景文王 9年(869 A.D.)에 唐 謝恩品으로 보낸 物品中에 瑟瑟細 金針筒 三十具가 나타날 뿐이다.

新羅의 瑟瑟도 古代 中國에서와 같이 碧珠 卽, sapphire였고, 그것은 西域 貿易品이었다. 興德王 服飾禁令 以前까지 瑟瑟은 眞骨女 六頭品女 以上에 屬하는 最上流階級 婦女의 冠과 梳의 裝飾에 使用된 寶石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瑟瑟은 또한 新羅國이 唐 謝恩品으로 보냈던 金針筒의 裝飾에 使用된 貴重한 物品이었다.

新羅 最上流階級 婦女의 服飾 裝飾品으로 使用되었던 瑟瑟도 他國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階級區別과 象徴 표시의 手段으로 使用되었다.

參考文獻

1. 康熙字典.
2. 廣雅.
3. 廣韻.
4. 舊唐書.
5. 金東旭, 增補韓國服飾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1979.
6. 本草綱目.
7. 辭源.
8. 辭海.
9. 三國史記.
10. 新唐書.
11.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台北, 南天書局 有限公司, 1981.
12. 魏書.
13. 李龍範, “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 商人의 貿易品”, 이홍직 박사 회갑기념 한국학논총.
14. 正字通.
15. 全完吉, 韓國化粧文化社, 열화당, 1987.
16.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台北, 丹青圖書有限公司, 中華民國, 75年.
17. 中國歷史 地圖 上, 下.

18. 通雅.
19. Kim Jin-Goo, Korean Costume : An Historical Analysi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The Univ. of Wisconsin, Madison, Wis., 1977.
20. Lauger, Betherhold, Sina-Iranica. Chicago, 1919.
21. William, S. W. Wells, A Syllabic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